

## 정밀성의 기술



### 예거 르쿨트르의 기반,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

예거 르쿨트르 역사는 스위스 쥐라 산맥에 인접한 발레 드 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매뉴팩처가 위치한 이곳의 환경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도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브랜드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심과 고요함이 가득한 풍경 속에서 진정한 예술적 열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밀성의 전통이 성장했습니다.

### 정교한 기술과 완벽한 기법의 조화

예거 르쿨트르에서 선보이는 워치메이커의 예술의 정수는 바로 정밀한 기법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숙한 장인정신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밀리노미터에서 자이로투르비옹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매뉴팩처의 다양한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예술과 마스터 워치메이커의 다방면에 걸친 전문성 속에서 정교한 기술과 미학적 노하우를 모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 장인정신과 정밀성

매뉴팩처는 설립 초기부터 무브먼트의 정확성과 기술적 정밀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계절이 바뀌어도 고요함이나 적막함이 그대로 깃들여 있는 스위스의 자연환경에서 기인했으며,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매뉴팩처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들은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로부터 영감을 얻으면서 심혈을 기울여 독창적인 스케치를 완성하고 밸런스 휠과 이스케이프먼트 휠의 진동 주기를 만들어내며 정밀성의 한계를 극복해왔습니다.

###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

칼리버에서 케이스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시계는 한 지붕 밑에서 전적으로 디자인과 제작 및 조립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예거 르쿨트르라는 이름은 흥미로운 수치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180 여 개의 전문 기술과 수공예 기법으로 심플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칼리버에 이르기까지, 400 여 개의 특허를 획득하며 약 1,250 개의 칼리버를 생산했습니다.

정밀성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메종의 기념비적인 발명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 세계 최초로 선보인 작품들입니다. 1844 년 밀리노노미터. 1895 년 최초의 그랑 컴플리케이션 포켓 워치. 1958 년 지오피직 크로노미터. 1967 년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20. 1992 년, 1,000 시간 마스터 컨트롤. 2004 년 자이로투르비용 1. 2007 년 듀오미터와 듀얼-윙 콘셉트. 2009 년 크로노메트리 대회 우승. 여기에는 예거 르쿨트르의 획기적인 발명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매뉴팩처로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정밀한 발명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는 모든 작품을 고안, 제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작은 디테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는 인내심을 바탕으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 **예술의 경지에 오른 정밀성**

예거 르쿨트르는 정밀성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기술적, 기계적 정밀성이 장인정신의 정밀함과 예술적 노하우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오랜 전통의 기요세, 인그레이빙, 보석 세팅 및 에나멜링 등의 장인 기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메종이 보유한 전문성과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예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뉴팩처"라는 명칭이 의미하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손입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프로토타입을 고안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구와 기구, 무브먼트와 무브먼트의 박동, 소재와 진귀한 스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은 바로 기술 연마를 멈추지 않는 장인의 손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신중하고 철저하며, 완벽하고 정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